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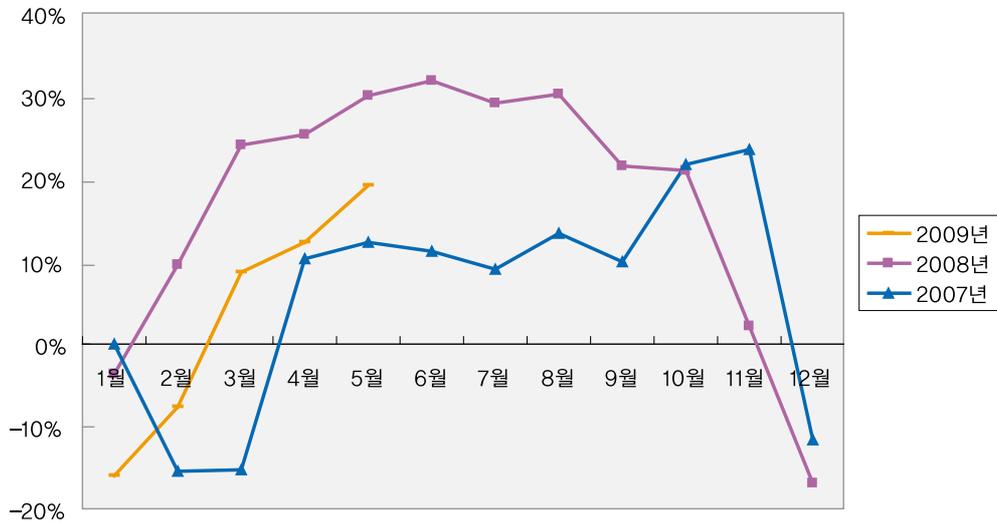
# 데이터를 보면 답이 보인다

김현회 /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이번 달로 상반기가 마무리 된다. 설비 건설 경기가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연초에 흑독하리라는 예상을 해서인지 아니면 아직 태풍의 눈이 지나가지 않아서인지 그래도 우리 회사들이 잘 버텨 주었다. 자재 값이 경기 하강 수준만큼 따라 주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다. 아래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하반기에도 자재 값 인하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 참여시 자재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둔 지나친 저가 낙찰은 후에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 5월 자재 동향

자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원자재 매집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인상 추세임</li> <li>- 당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설비 자재 가격은 환율 하락이 반영되어 국제 인상폭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음</li> </ul>
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스크랩 인상으로 가격 인상 추이 보임</li> <li>- 작년 가격 추이로 예견하건데, 7월까지의 인상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 상승분을 고려하면 단언하기 어려움</li> </ul>
동 연관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스크랩 인상의 여파를 받아 관련 제품인 황동밸브, XL부속, 신주부속 등이 소폭 인상됨</li> <li>- PB제품 중 황동 제품도 6월경 가격 인상 예상</li> </ul>
강관, STS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관, STS관 및 용접부속의 경우 6월 가격 인하 예상</li> </ul>
전체 전망 및 구매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사에서는 공식적인 가격 인하보다는 대리점별 D.C 혹은 건별 물량에 따른 가격 조정 경향이 있음</li> <li>- 물량을 최대한 모은 후 비교 견적을 통한 가격 협상 유리</li> </ul>



▲ 2007~2009년 동관 가격 변동 추이, 자료 제공 : 원칸네트웍스, 2009년 5월

현재 설비 건설 자재 중에서 가장 우리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동 관련 제품이다. 이와 관련 여러 논리와 추론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회원사들의 향후 자재 구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그래프는 3개년에 걸친 동관의 가격 변동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해의 경영 환경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연간 흐름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먼저 2007, 2008년 그래프를 보면 수요 감소 등으로 4/4분기에 약세를 보이며 떨어지기 시작한 동관 가격이 1월부터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다 4월, 5월 들어 그 상승세가 꺾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3/4분기까지 약간의 변동성을 유지하며 지속된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다시 급격한 하강세로 돌아선다. 올해의 그래프를 보아도 그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에 따른 전반적 가격 변동은 있지만

시기별 변동 추이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기별로 선구매, 공동 구매, 구매 지연 등의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면 원가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칸네트웍스 (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s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에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사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